

2006. 10. 18

세계여성농업인의 날에 생각하는 여성농업인 문제와 과제

김경미

 농촌진흥청 농업연구관
 gimgm@rda.go.kr

들어가며

세계 식량과 농업 생산, 식품의 안전성의 확보, 가족원 모두의 쾌적하고 편안한 삶(well-being)의 조건들을 만드는 데에는 여성농업인들의 역할이 결정적임에도 이는 아직 공평하게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농업과 농촌의 발전에 이들 여성의 기여를 정확하게 평가하지 않는다면 지금과 같이 공평하고 효과적이며 지속 가능한 발전을 더 이상 추구할 수 없을 것이다. 세계적으로는 빈곤, 식품의 위해성이 증가하고 있고 농촌을 떠나는 인구도 여전히 증가하고 있으며, 환경의 파괴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개발을 위한 자원의 이용과 접근에서 더 나은 삶을 누리기 위한 전략과 지속가능한 삶의 영위를 위하여 보이지 않는 노력을 할 주체로서 여성농업인의 역할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즉 영양수준의 개선, 식량과 농산물 생산과 보급의 향상, 농촌 주민 삶의 조건 개선 등에 그 역할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세계식량기구(FAO)는 앞으로 여성의 역할은 더욱 다양해질 것이며, 식량 생산자로서 세계를 먹여 살리는 역할 외에도 생물자원의 보전, 자연환경의 보전, 농업 자원의 유지 등에 기여할 것이라고 하였다.

유엔발전계획(UNDP)과 FAO는 불평등이야말로 빈곤처럼 세계적으로 그 차이를 시정하지 않을 수 없는 압력을 받게 될 중요한 문제라고 언급하였다. 세계적으로 여성은 농업생산의 주요 생산주체로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농업주종사자의 53%가 여성으로 남성보다 많으며, 농가의 부부노동력 의존도는 87.8%, 소득이 높은 리더농가의 경우에는 94.6%에 이를 만큼 여성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이와 같이 여성의 농업에 대한 기여도가 높음에도 여성의 의사결정 참여도나 생산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소득이나 이익 배분 비율은 매우 낮다. ILO는 세계 인구의 절반은 여성이지만 이들은 세계 자산의 1%만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였으며, 세계 노동시간의 1/4을 제공하는 여성이 그 노동의 결과로서 얻어지는 수입의 10%만을 차지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농업생산에 노동력을 제공할 뿐 성과의 배분에는 참여하지 못하는 문제가 세계 공통적임을 보여준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농가의 여성 93%가 농업에 종사하는데 그 중 10.6%만이 농지를 자신의 명의로 소유하

고 있고, 11.1%의 여성만이 농산물 판매로 발생한 수입을 자신의 명의로 된 통장에 입금한다고 하여 ILO의 지적을 잘 대변하고 있다.

최근 논의되고 있는 도하개발의제(DDA) 논의에서도 농업과 농촌 분야에서 나타나는 다원적 기능에 대한 이해와 인정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할 것인가가 뜨거운 쟁점이 되고 있다. 더욱이 이와 관련하여 여성의 역할과 기여도에 대한 인정이 역시 논의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이에 대한 특별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여성농업인에 대한 국제적 움직임을 간략히 살펴보고 우리의 대응 방안을 점검해보고자 한다.

세계여성농업인의 날

매년 10월 15일은 FAO가 정한 ‘쌀의 날’ 이자 ‘세계여성농업인의 날’ 이다. FAO는 특히 쌀로 대표되는 식량의 생산에서 절반 이상을 담당하는 여성의 역할을 기억하도록 해왔다. 이러한 인식과 여성농업인단체들¹⁾의 노력으로 1995년 북경에서 열린 제 4차 세계여성대회는 이 날을 ‘세계여성농업인의 날’ 로 선포하였다. 아울러 매년 주제를 선정하는데 이들 주제는 마땅히 여성농업인의 권리 또는 필요한 역할에 대해 세계 각국이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도록 촉구하고 있다. 따라서 이 날은 각 국가에서도 농업과 농촌발전에 여성이 기여하는 역할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한 다양한 행사들을 개최한다. 우리나라도 여성농업인단체별로 다양한 행사들이 열리고 있다.

‘세계여성농업인의 날’ 의 목적은 여성농업인의 역할과 기여를 명확하게 가시적으로 드러내고, 아직까지 국가는 물론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여성농업인의 결정적인 역할에 대하여 인정받을 수 있는 계기를 조성하며, 이들 여성농업인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확대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여성에 대한 편견과 불평등한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각 국가와 사회에 촉구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여성농업인을 위한 평화가 세계 식량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핵심 메시지라 할 수 있다. 1997년 10월 15일 빌 클린턴 당시 미국 대통령은 이 날을 미국뿐만이 아니라 세계 모든 사람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절대적으로 기여하는 여성농업인을 눈여겨보고 인정하게 하는 하기 위한 적절한 프로그램이자 활동의 하나라고 언급하였다. 필리핀에서도 역시 여성농업인의 매우 결정적이고도 고무적인 기여에 대하여 인정하고 국가적으로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며 이 날을 기념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뚜렷한 기념 프로그램이 없다.

세계여성농업인의 날 기념회가 선포한 올해의 주제는 “내일의 리더 여성농업인 (Rural Women : Leaders of Tomorrow)” 이다. 이것은 단순한 구호 하나를 더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 인류를 위한 진지한 질문이다. 아직까지도 많은 나라에서 영양실조와 배고픔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 가난한 나라일수록 여성의 농업생산자로서의 역할은 더욱 중대하다. 선진국에서는 여성농업인의 비율이 줄어들고 있지만 그 역할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도시민의 휴양을 위한 농촌체험을 생각해보라. 줄어드는 환경자원과 농업자원의 유지를 위한 인력은 점차 줄어들고 남아있는 여성농업인의 역할은 상대적으로 증가하는 것이다. 환경과 농업자원은 미래 인류를 위하여 반드시 보전해야 할 중요

1) 여기에 참여한 단체들은 International Federation of Agricultural producers (IFAP), Associated Country Women of the World (ACWW), Network of African Rural Women Associations (NARWA), the Women's World Summit Foundation (WWSF) 등이다.

한 자원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여성농업인의 역할은 매우 다양하다. 농산물을 이용한 가공과 전통지식 혹은 전통적인 기술을 활용하여 만드는 음식과 전통공예품, 농촌자원을 활용하는 농촌관광, 도시민과 어린 아이들을 위한 농촌 체험학습, 줄어드는 젊은 사람들을 대신해서 농촌의 노인들을 돌보고 지역사회를 유지해야 하는 역할, 지역사회 공동체 활동을 이끄는 리더로서의 역할 등, 그 역할은 점점 더 늘어나고 중요해지고 있다.

오늘날의 여성농업인은 그들의 조상처럼, 여전히 그들의 기여도를 인정받지 못하는 리더지만, 선도적인 농업과 식량생산자며, 그녀의 가족들의 기둥이며, 지속가능한 개발과 발전의 챔피언이다.

FAO의 여성농업인 발전전략과 계획

농업부문에 있어 여성과 관련된 동향을 보면 세계식량기구(FAO)는 농업부문의 지속적인 발전에 여성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세계식량의 절반을 생산하는 주체로서 여성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2001년 11월 2~13일까지 로마 리미니에서 열린 FAO 제31차 총회 의제 C2001/9 FAO Plan of Action on Gender and Development(2001-2007)를 보면 첫 번째 ‘발전에 있어서 여성을 통합하는 행동계획(1989-1995)’ 및 두 번째 ‘발전에 있어서 여성을 고려하는 행동계획(1996-2001)’의 성과를 어느 정도 인정하면서 여성을 고려하는 발전 전략(WID)은 여성에 대한 주변적이고 소극적이라는 인식 아래, 북경여성대회의 행동계획을 각 국가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행동계획으로서 각종 발전과정에서 나타난 혜택과 결과에 대한 성분식(gender analysis)을 기초로 ‘성(gender)과 함께 발전을 생각하는 전략(GAD)’을 제안하고 이를 현실화시키기 위한 방향(guideline)을 과제별로 제시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여성계에서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는 방향이며, 특히 농업부분의 여성문제와 관련된 중요한 관점이자 적극적인 수용이 필요한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표 1〉 FAO의 제31차 총회 의제 중 여성농업인 관련 조항

제1-9조(배경) 발전에 있어서 여성의 역할을 고려하는 입장에서 성(gender)과 함께 취약계층과 함께 발전하는 적극적인 입장으로 전환하도록 함
제10조(성과 함께 발전하는 FAO 행동계획의 목적)
1. 조직적인 활동 속에서 여성주류화를 통한 지속농업과 농촌발전을 위하여 FAO가 회원국을 지원할 수 있는 여건 개선
2. FAO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성주류화의 중장기 목표 달성을 위한 우선순위의 결정과 효과적 달성
3. 행동계획의 실행을 위한 폭넓은 연대와 지원
4. 본부 및 지부에서 여성주류화에 관련된 FAO 전문가의 활동여건 조성
제15-17조(기본개념) 성(gender)의 기본적인 분석을 토대로 함께 발전하는 전략을 추구하는 적극적인 개념으로 전환
제19-21조(사회경제적 상황과 성분식 체계) 사회경제적 상황과 관련된 성분식은 매우 중요하며, 취약집단(disadvantaged people)의 우선적 요구의 충족, 발전에 지역주민의 참여 등이 기본 전제임

제22-33조(농업과 식량의 안정적 공급과 관련된 여성의 역할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제들) 북경여성대회의 실천 강령, 세계화, 인구변동-에이즈, 농촌노령화, 이농 등, 자연자원의 압력 증가-기후변동, 자연재해 등
제34-35조(FAO 성과 발전계획 2002-2007의 목표) 1. 충분하고 안전하고 적절한 식품공급을 위 한 접근성의 평등화, 2. 경제적·사회적 진전과 모든 분야의 복지 증진을 통한 지속적 농업과 농촌발전에 계속적인 기여, 3. 식량과 농업과 관련된 자연자원의 보전, 개선과 지속적 이용
제93조(식량과 농업관련 정보의 공유) 식량과 농업관련 정보 중에서 성 관점의 정보와 여성 관련 전문적 연구결과 등의 적극적 공유
제118조(FAO 본부와 지부의 협력을 위한 여건 조성) 여성주류화를 위한 본부와 지부의 협력을 지원하고 행동계획을 실행할 수 있는 장치들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세계여성농업인 대회

여성들이 농업과 농촌발전에 기여해온 역할에 비하여 정당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문제를 세계여성농업인이 함께 풀어보고자 4년마다 “세계여성농업인대회”가 열리고 있다. 제1차 대회는 1994년 7월 호주 멜버른에서 열렸으며 제4차 대회는 2006년 아프리카에서 열릴 예정인데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이 세계여성농업인대회에 함께 참여한 경험이 없다.

지난 제3차 대회에서는 “여성을 농업과 농촌발전의 파트너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지 않는 것은 여성과 남성들 개인적인 발전뿐 아니라 그들 국가의 발전에도 방해가 되며, 빈곤과 식량난 등 세계가 지닌 심각한 문제들을 완화할 수 있는 기회를 억제하게 된다”고 선언하면서 여성농업인 노동을 경제지표에서 인정할 수 있는 가시적인 조치 및 통계에 반영, 가족노동의 실질적인 공동소유권을 남성과 여성이 동등하게 누릴 것, 물/토지/자본 등 생산자원에 대한 여성의 접근성 향상, 여성농업인 발전을 위한 교육과 서비스의 체계적 제공, 농업생산자 조직과 지역개발 관련 활동 등에 대한 사회참여의 촉진, 여성이 농촌에 남을 수 있게 농업시스템 개편과 인센티브 제공, 여성의 지위를 사회적으로 인정하는 법적/제도적 여건의 정비, 여성이 농업에서의 문제 및 관련되는 정치적 견해를 제시하는 모든 의사결정에 참여 확대, 여성이 필요로 하는 기술과 지식, 장비의 활용 가능성 증진 등과 같은 적극적 조치들을 국가가 의지를 가지고 수행하도록 촉구하고 있다.

유럽의 여성농업인 지원 동향

유럽의 경우 유럽연합(EU)에서 1차(1981-1985), 2차(1986-1990), 3차(1991-1995) 행동계획을 마련하여 모든 회원국이 여성정책지침으로 삼도록 하였고 스웨덴은 1975년에, 핀란드는 1980년에 그리고 노르웨이는 1981년에 국가행동계획을 수립하여 그 후 개정 보완해왔다. 일본의 경우도 1977년과 1987년에 1, 2차 국내행동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전 세계적으로 여성은 농촌개발의 중추이며 여성의 노동이 없는 농촌은 존재할 수가 없다. 그러나 EU의 농촌은 사회, 경제구조, 지리적, 문화적 면에서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으나 자녀양육, 학교, 의료, 수송 및 문화적 인프라가 없다는 면에서는 동일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농, 가난, 부족한

학습기회, 임시고용이라는 면에서도 동일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EU는 농촌지역에서 살며, 일하고 있는 여성과 남성, 그리고 아이들에게 보다 매력적이고 가치 있는 농촌으로 만들기 위해 농촌관광, 생산물 가공과 마케팅의 연계로 고용문제를 해결하고 소득을 높이는 정책을 추진하며 교육과 자질 향상을 위한 훈련기회를 제공하고 보육, 학교, 의료 시설 등의 사회적 서비스를 강화하며 의사결정 참여를 촉진하고 있다.

일본의 여성농업인 지원정책

일본에서는 여성농업인을 남성과 동일한 파트너로 인정하기 위한 발전계획을 1993년도에 수립하고 경영분야에서 동등하게 참여하고 자산분배에도 권한을 가질 수 있는 가족경영협약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또한 자산형성, 농지의 권리 취득, 연금, 상속, 이양, 법적 농업인 인정제도에 포함될 수 있는 방안, 여성농업인 명의의 창업, 독자적인 농업자금의 수혜자로서 위치, 출산이나 육아, 부양 등에 대한 지원, 다양한 교육기회의 제공 등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 여성농업인 지원정책

우리나라에서는 1997년 농림부에 여성담당관제도를 도입하여 1998년 첫 여성담당관이 부임하면서 농업분야에 여성정책이 비로소 나타나게 되었다. 이를 계기로 여성농업인 육성 5개년 계획이 수립되어 2001년부터 1차 5개년 계획이 완료되었고, 2006년부터 2010년까지 2차 5개년 계획이 수립, 추진 중에 있다. 2001년에 국회를 통과한 여성농어업인육성법은 2002년 7월부터 시행되었고, 2005년 개정을 통해 각 시도 단위의 광역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여성농업인을 위한 발전계획을 독자적으로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주요한 정책으로는 여성농업인의 지위 향상, 협동조합 및 각종 위원회에 여성농업인 할당제 적용, 여성농업인 복지 증진을 위한 서비스 확충 등이다. 또한 농촌진흥청에서는 여성농업인의 소득 향상을 위한 창업 지원, 다양한 교육 훈련, 평생학습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이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여성농업인의 82%는 관련 규정이 없어 법적 농업인으로 인정받지 못함에 따라 이를 법적으로 인정할 방안들이 제안되었으며, 농업노동에 기여한 가치가 인정되지 않아 각종 상해해 보상 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이들의 농업노동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평가방법을 7개 작목에 대하여 제안되었으나 아직은 보상과 보험관련 약관 개정에는 포함되지 못하고 있다. 아울러 성평등 교육 프로그램 뿐 아니라 여성농업인의 능력 개발을 위한 농업기술 교육체계, 의사결정 지원 프로그램, 재무관리 프로그램, 생활일지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지역 농촌지도기관 등을 통해 보급되고 있다. 아울러 여성의 농업경영 참여 확대를 촉진하는 가족경영협약이 2004년 처음 시도되어 현재 100농가에서 협약을 체결한 상태이다. 그밖에 아주 기초적인 통계자료조차 없었으나 2002년 농촌진흥청에서 처음으로 ‘통계로 보는 오늘의 농촌여성 : 일과 생활(Rural Women in Korea)’를 생산하여 2004년 뉴욕에서 개최된 제 48차 유엔여성지위위원회에서 성인지적 국가 통계의 모범적 사례로 평가받았다.

나가며

농업을 기반으로 하는 나라들, 특히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등의 나라들에서는 한국의 눈부신 경제 성장 속에서 농업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고 여성의 역할과 기여가 어떻게 평가받고 있는지가 관심의 대상이지만, 우리의 경우 국내적으로도 아직은 여성농업인에 대한 관심이 간헐적이고도 일시적인 현상으로 사회적 이슈화가 매우 희박한 상황이다. 그러나 앞으로 한·중·일 협력은 물론 국제농업기구와 협력을 통해 한국 여성농업인의 생활과 활동을 국제적으로도 널리 알리면서 연구 활동도 주도해갈 수 있을 것이다. 지난 2005년 세계여성학대회에서 제안된 AWARD(Asian Women in Agricultural Research and Development)를 기초로 한중일 협력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2007년 10월 아태식량비료기술센터(FFTC)와 농촌진흥청 공동으로 ‘미래 농업과 농촌의 발전에서 여성의 역할’이라는 회의를 개최하게 된다. 이와 같은 노력들은 세계로 향해 나아가는 우리 여성농업인의 힘찬 발걸음이다. 세계여성농업인의 날을 계기로 우리 사회에서 여성농업인의 기여와 역할의 중요성에 대해 환기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었으면 한다.